

광주·전남 내년 국비 10조원 시대 ‘활짝’

市 3조1천억·道 7조5천억…전년비 4천억씩 늘어

정부 604조 슈퍼예산 편성…올해보다 8.3% 증가

광주시와 전남도 내년 예산안 규모가 사상 최초로 10조원을 넘어섰다.

3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2022년도 정부 예산안 604조4천억원 중 광주시와 전남도 반영액은 각각 3조1천억원여, 7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2조7천억원여(광주), 7조

1천억원여(전남)보다 4천억원씩 증액된 규모다. 광주시 예산안이 3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3조1천457억원(385건)으로, 올해 정부 반영액보다 13.8%(3천819억원) 늘었다. 이 중 신규 사업은 1천172억원(80건), 계속 사업은 3조285억원(278

건)이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형 SOC 사업과 인공지능(AI) 및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 등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전념했다.

신규 사업으로 ▲AI가전산업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40억원) ▲자율주행차 대응 편의내장 부품산업 고도화(30억원) ▲수요기반협력사 밸류체인 고도화 및 자립화 패키지 지원(33억원) ▲태양광이용 70MPa급 이동식 수소충전시스

템 개발 실증(21억원) 등이다.

계속 사업으로 ▲문화 광주 구축 사업(1천504억원) ▲인공지능 도시 광주 기반 구축 사업(4천135억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녹색도시 조성 사업(1조8천390억원) ▲SOC 등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7천77억원) ▲사람 중심 민주인권 상생도시와 인권체계 구축 사업(351억원) 등이 반영됐다.

전남도는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사업 등 각종 현안 사업과 ‘블루 이코노미’ 핵심 사업을 위한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김영록 지사 등이 정부 정책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등을 직접 찾아 다니면서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는 평가다.

분야별로는 ▲각종 SOC 사업(8천640억원) ▲연구개발(R&D)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 등(245억원) ▲에너지·전략산업(554억원)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사업(977억원) ▲바이오·백신산업(415억원) ▲농·수산 부문(3천996억원) 등이다.

이용섭 시장은 “민선 7기 임기 4년 중

지난 3년이 변화와 혁신의 씨앗을 뿌린 시기였다면 내년은 값진 결실을 맺는 해가 될 것”이라며 “광주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도가 건의한 현안 사업과 블루 이코노미 핵심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대거 반영됐다”며 “추가 발굴한 사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국고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후성기자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개막을 하루 앞둔 31일 목포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관계자들이 마지막 전시준비를 하고 있다. 수목비엔날레는 ‘오채찬란 모노크롬·생동하는 수목의 새로운 출발’이란 주제로 1일부터 10월31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과 진도 운림산방 일원에서 펼쳐진다. <전남도 제공>

‘문화의 향연’ 광주·전남 가을 수놓는다

디자인비엔날레·국제수목비엔날레 오늘 개막 2개월 대장정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1일 2개월 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관련기사 3면
올해 9회 짝을 맞은 ‘2021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61일간 광주비엔날레전시관·광주디자인진흥원 등에서 ‘디-레볼루션’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디-레볼루션’은 디자인(Design)과 레볼루션(Revolution) 합성어로 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등 변화의 물결 속에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이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관 광장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위성호 광주디자인진흥원장, 김현선 202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등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한다.

본 행사는 ▲본전시 5개 ▲특별전 1개 ▲기념전 2개 ▲국제학술행사 ▲온·오프라인 마켓 ▲디자인체험 및 이벤트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 작품은 폴란드·이탈리

아 등 세계 50개 국가 421명의 작가와 국내의 기업에서 출품한 총 1천39종이다.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도 1일 목포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31일까지 펼쳐진다. 개막식은 1일 오후 2시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김영록 지사, 김한중 도의회의장, 장석용 도교육감, 윤재갑 국회의원 등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목포와 진도 각 3개 전시관에서 열리는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오채찬란 모노크롬 생동하는 수목의 새로운 출발’이란 주제로 목포 문화예술회관과

진도 운림산방 일원에서 선보인다. 국내외 15개 국가 200여명의 작가가 참여해 수목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우리 삶과 어떻게 연계해 있는지 보여주는 작품을 선보인다.

2회 짝을 맞은 올해 수목비엔날레는 목포·진도 6개 주전시관과 4개 특별전시관, 15개 기념전시관 등 광양, 여수, 해남, 보성을 포함, 전남 전역으로 전시공간을 확대했다.

수목 패션쇼와 노을 콘서트, 수목 퍼포먼스, 나도 수목작가 등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가 펼쳐진다.

모든 행사와 전시는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한다. 현장 관람은 사전예약제와 순차 관람 방식으로 운영한다.

/김재정·이종형기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투표 돌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투표가 31일 첫 경선 지역인 대전·충남에서부터 시작됐다.

오는 4일 대전·충남 합동연설회에서 발표되는 이번 투표는 이 지역 권리당원 대상의 온라인 및 ARS 투표(5일간)와 대의원 대상의 현장투표(다음달 4일) 방식으로 각각 진행된다.

현장 투표는 일반당원 및 국민선거인단 가운데 별도로 신청한 사람도 대상이다.

민주당은 또 오는 5일 세종·충북 순회 경선 발표를 앞두고 1일 이 지역에 대한 투표도 시작한다.

민주당은 이후 대구·경북(9월11일), 강원(9월12일), 광주·전남(9월25일), 전북(9월26일) 등 11개 권역별로 순회 경선을 진행하면서 해당 지역별 투표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대의원·권리당원과 별개로 일반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인단 투표는 3차례 나눠서 실시된다.

민주당은 강원 순회 경선 때인 9월12일 일반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인단 1차 투표 결과를 공개한다. 1차 선거인단에는 약 70만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때가 향후 경선 흐름을 좌우할 ‘슈퍼 위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차 ‘슈퍼 위크’는 10월3일 인천 개표 시 동시 발표되며, 3차 ‘슈퍼 위크’는 10월10일 서울 개표 시 동시 발표된다. 민주당 경선은 10월10일 서울을 피날레로 종료된다. 이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경선에는 추미애·이재명·정세균·이낙연·박용진·김두관(기호순) 후보 등 6명이 뛰고 있다.

/김진수기자

오늘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

국·수 ‘공통+선택과목’ 체제

올해 개편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출제 경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9월 모의평가(모평)가 1일 실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2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를 다음 달 1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천138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31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51만8천677명으로, 재학생이 4만9천62명, 졸업생 등이 10만9천615명이다.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지원자 수는 3만

5천778명 증가했는데 재학생은 6천732명 감소했지만, 졸업생 등은 4만2천510명 늘었다. 작년 9월 모의평가보다는 3만1천300명 늘었고 재학생은 225명 줄었지만, 졸업생 등은 3만1천555명 증가했다.

/연합뉴스

Today

장흥 달아난 성범죄자 ‘행방요연’ 6면

시교육청 차량5부제 시행 7면

광주FC 윤평국 골키퍼의 ‘반전’ 16면

메타버스·방송·AI·게임·캐릭터
애니메이션·AR·VR
광주 콘텐츠 종합전시회

www.acefair.or.kr

2021 메타버스, 그이상의 콘텐츠

광주에 이스페어

9.9 THU - 12 SUN
김대중컨벤션센터

https://www.acefair.or.kr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KICT, KCTA, KIDP, Kotra

협찬: 연합뉴스TV, 한국직업방송, NC, TVCHOSUN, MBN, 한국경제TV, 특별협찬: LG전자, LG헬로비전

1. 메타버스 콘텐츠 주제관 Metaverse Ship

여행&레저 / 엔터테인먼트 / 바이오&헬스 / 메타버스 플랫폼 / 문화&예술 / 패션 뷰티

2. 콘텐츠 개발 컨퍼런스 (CDC) Contents Developer Conference

Facebook의 기초연설을 포함한 메타버스, OTT, 5G, Future commerce 분야 글로벌 기업의 전문가 강연

3. 시민참여 프로그램

-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 미디어파사드 특별관 “미디어 파크” (디스트릭트 자이언트 플라멩고, 핑크 라쿤 작품 관람 외)
- 초청작가 프로그램 (떠영, 블루스카, 소녀의 시간, 로사, 미야켓)
- 다 함께 게임문화 talk 콘서트
- 즐거운 코딩(MODI를 활용한 AI 코딩교육)
- 보드게임대회&체험전 / 세모귀 마켓

4. 공개 방송 프로그램

- ‘그곳에 살아본다’ / 송준근 (개그맨), 나상도 (가수)
- 팔도밥상 스페셜 쿠킹쇼(이원일 셰프) / 참석자 밀키트 제공
- 라디오 음악쇼 <K-RIDE, UNVCOED, MEN ON AIR, SWEET RANDEVIOUS(포르테 디 콰트로 멤버 손태진)>